

나는 겨자나 누룩이냐?

마태 13:31-33

서론

지난 주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7억7천만원 현찰을 타게 된 사실입니다. 로터리 티켓 3장을 사고, 3번째 티켓은 자신의 생일 번호를 넣어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 혼자서 미국 역사에 없었던 기록을 깨는 7억 7천만원이란 어마어마한 현찰을 타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지요.

7천만원이라도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700만원이라도, 70만원, 7만원, 7천원이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조건 없이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지나쳐 버리지요.

겨자나 누룩이나 너무 작아서 그 특징마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7억7천만원을 탄 사람의 마음은 천당이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만들겠지요?!

이 시간 우리도 천당을 만들어 봅시다.

천당이 무엇인지 천국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 봅시다.

7억7천만원 상금 보다 더 위대한 천국을 만들어 낼 희망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

겨자씨 나무처럼 한 곳에 심겨져서 지정된 곳에 영향력을 미친다

누룩은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 줌의 누룩으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누룩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누룩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쌀밥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재료이다.

1. 겨자는 앞 뜰에 심기는 나무

3 미터까지 나무로 성장하면서 그늘을 만들어 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를 믿음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마태17:20).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보고(마가9:14-29; 누가9:37-43) 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지요.

여러분 주위엔 믿음이 많은 크리스찬들 많았지요. 겨자씨 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제자들이 간질병을 하느님께서 고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을 심어 놓으신 하느님께서 작동하시면 산을 들어서 바다위에 올려 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불 것 없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끝 결말 마지막, 추수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폭팔로 나타나게 됩니다.

별 보잘 것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교인들이 많지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눈으로 범하는 미숙한 인간 대우입니다. 사람의 모양새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그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장하고 퍼져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개혁하신다는 점을 피력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비록 겨자씨처럼 ὡς κόκκον σιναπίδος 그 당시 사회적인 유 치료는 보잘 것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밭에 받아 드리면, 그리고 내 마음 옥토 밭에서 자라나는 작은 믿음은 겨자 나무처럼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진 가지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영원토록 쉼 수 있는 천국으로 내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겨자씨에 대해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누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누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겨자나무처럼 잘 성공해서 천국을 만듭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취득한 민족이지요.
가장 유명한 인간은 아인슈타인이지요.
누룩처럼 온 세계에 퍼져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2000년간 살아 온 민족이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민 가서 처음으로 실패한 나라가 있다.

유대인 약 600여명이 천여 년 전에 중국 땅으로 이민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에서 성공합니다. 의사, 변호사, 재판관,

지역의 높은 관공소 직원, 박사, 대학의 교수 등 고액의 수입을 받는 요직에 앉게 됩니다. 유대 회당도 세우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읽으며 제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부귀와, 아름다운 부인, 권세, 명예, 특혜와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부인 미인과 향락을 누리고, 술과 여행, 사회적 명예와 존경심, 물질에서 오는 높은 사회적 혜택은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중국인들은 끊임없이 부여했습니다.

600여년이 지난 후에는, 유대교와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비슷한 종교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회당도 없어졌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의 이름도 족보에서 살아져 버리고, 유대인들의 혈통은 중국인들의 피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유대교도 유교에 흡수되어 버리고, 남아 있는 것은, 유대교와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비슷한 종교라는 비석만 세워져 있었다는 유대인이 이민 가서 실패한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이 기록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성공한 유대인이 타 민족인 중국인의 유교와 혈통에 흡수 되어버린 이민 가서 실패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잘 살고, 잘 놀고, 잘 즐기고 춤 잘 추고, 권세, 명예, 부귀와 성공 다음에는 타락과 부패 자신의 존재마저 사람들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자신의 존재마저 찾아 볼 수 없다는 슬픈 이민사의 한 토막입니다.

2. 묵은 누룩 (ζύμης 주메이쓰 נֶאֱמַר 써오르)의 부정적인 면

① 불로 태워 바치는 모든 제사에서 누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레위2:17)

② 출애12:8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애집트의 장자들을 도살하는 밤에 누룩이 없는 빵과 쓰디쓴 풀잎을 먹도록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집트인들의 노예로 있으면서 먹고 살았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노예였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마른 빵을 먹고 살았다.

וְהָלַכְתֶּם מִיִּרְמְלֵעַ תּוֹצְמוּ (Exo 12:8)

요홀루후 알-머로림 우마초트

그들은 누룩이 없는 빵들과 쓴 풀잎들을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없이 매마른 빵을 먹으며 노예생활 했던 그 때를 기억하도록, 제사때나 절기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정해 놓았다.

③ 유월절에는 7일 동안 집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먹는 자는 자손에서 끊어진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출애12:15).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예생활을 하면서 누룩이 없는 마른 빵을 먹었고, 물 없이 불로 태운 고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각성

시키기 위해서 였다.

그런데 이쓰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 다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주전 300여년 전에도 이쓰라엘 사람들이 10만명 이상 에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 프톨레미의 번역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념해서 10만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 ④ 누룩에 반대되는 물질은 소금이였다. 이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⑤ 누룩은 또한 부패의 빵이라 불리운다. 누룩이 섞어지는 밀가루와 부패해서 누룩이 팽창하는 기운을 모두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예기하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과 살면서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어 살면서 유대인의 종교와 언어와 피와 전통마저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유대인들의 부패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누룩이다.

부정적인 단어인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통적으로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말들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명절 때에는 집에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나 철저히 찾아서 제거하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누룩이란 단어를 천국을 비유하는 긍정적인 단어로 변화시켰습니다.

옛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들이 새로운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유월절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5:17).

내 마음 속에 잘못 나가는 길이 있는지를 살살이 뒤져서, 나를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소서(시편139:24)

신약으로 넘어 오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수차례 나온다(마태16:6, 11, 12). 누룩이 모든 밀가루에 퍼져가기 때문이다.

누룩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전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극히 주의하도록 지시하셨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당시 이쓰라엘의 정치권력인 산헤드린의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들도 나의 마음과 정신 속에 누룩과 같이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나갈 수 있는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말들을 살살이 뒤져서 제거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은 밀가루 속에서 번져가는 누룩과 같다’(13:33),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마음과 세상에서 부풀면서 급속도로 증식하고 번식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비유다. 묵은 누룩은 뽑아내서 버리고 활성력이 높은 새로운 누룩을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아서, 밀가루와 같은 나의 삶이 천국으로 증식하고 번져가는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로마의 식민지로 나라 없이 살고 있던 이쓰라엘에게 예수님은 누룩을 넣어 주셨다.

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가르치시고, 누룩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쓰라엘에게 천국을 세우는 천국복음을 16회나 가르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때마나, 그 곳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천당을 마음에 지었습니다.

2017년도 미국과 로스엔젤레스에 필요한 누룩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15:1 - 15:11

번역 이 대선 목사

15:1 일곱째 해 끝에는 너는 면제를 실행하라.

15:2 이것이 면제하는 방법이다, 모든 채권자들은 그의 이웃에게 빌려 주었던 그의 손의 용자를 면제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웃을 그리고 그의 형제를 강요하지 말라,

이쓰라엘 사람들은 이쓰라엘 형제다 용자해 줄 때에, 용자에다 이자를 붙이거나, 돈에다 이자를 붙이거나, 식품에다 이자를 붙이거나 아무거나 빌려주는 것에는 이자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신명23:19. 출애22:25). 그 이유는 채권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20).

빌려주는 목적은 어렵게 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야 가난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15:3 너는 외국인은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형제가 너에게 빚지고 있는 것은 너의 손으로 하여금 면제해 주도록 해야 한다. thou, shalt cause thy hand to let drop

15:4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상속하도록 유산으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여호와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에는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5:5 너남이, 내가 오늘 너남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 전체를 준수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듣는다면,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손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신명8:17). 하나님 없이 나 혼자 7억7천만 불을 터켄 3장 사가지고 타냈다. 내가 Facebook을 창립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Window Operating System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내가 Google을 창안해서 돈을 벌었다. 나는 주식의 왕이다. 부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30년 모기지 애호가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제주로, 내 통찰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신명기 15장에는 관심이 없다.

15:6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남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용자를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빌리질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남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신명기 15장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목적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즉 이 계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 15:7 만일, 너남의 하느님 여흥바님께서 너남에게 주시는 너남의 땅 안에 있는 너남의 성문들 중의 하나에서, 너남의 형제들 중 하나로부터,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독하게 먹지 말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인 너의 형제로부터 너의 손을 떼지 말라.
- 15:8 그러나 너는 그에게 관대하도록 너의 손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부족한 그 필요에 충분하도록, 그에게 틀림없이 빌려주어야 한다,
- 15:9 너남의 마음속에 악한 말이 존재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도록 하라! 빛을 면제해 주는 해, 7년 제 해가 가깝다, 너의 눈이 그 가난한 자인 너의 형제에게 적의가 있다, 그리고 너남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너를 대항해서 여흥바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것은 너남 안에서 죄가 된다.

이 구절은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거의 무한에 이르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는 7년 제 해에 돈을 빌리려고 온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라는 명령이다. 로마서 12:8에도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 기부하는 자는 관용심으로, 각자가 기부하지만, 부득이 혹은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자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고후9:7)는 말씀이 있다.

- 15:10 이 문제 때문에 너의 하느님 여흥바님께서, 너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너남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너남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남은 그에게 풍부하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남이 그에게 줄 때에 너남의 마음이 인색함을 느껴선 안된다,
- 15:11 가난한 자는 그 땅으로부터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남을 명령한다: 너는 너남의 땅에 있는 너남의 형제에게, 너남의 빈곤한 자에게 그리고 너남의 가난한 자에게, 손을 관대하게 펼쳐야 한다!

결론:

이 세상에서 손을 관대하게 펼치며 살다 간 인물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밀려오는 환자들을 고치셨고, 수 천명씩 먹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르치신 분이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며 내가 천당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서는 테레사 거지 수녀를 거론할 만한 인물이지요. 노벨 평화상에 인도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묻어주기까지 마지막 떠나는 인간의 고난의 순간을 사랑으로 동행해 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누룩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 가면서 감명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화를 끼치는 인간상으로 남게 될 크리스찬이지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천국을 건설합시다.

로스엔젤레스의 문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지요.

홈리스는 너무나 많이 급속히 사망에서 찾아 볼 수 있지요?

왜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할 때에 채무를 7년 말에 면제해 주라는 말씀을 하느님 명령으로 기록해 놓고도 국가의 재정법으로 법리화 하지 않았을까?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온 세상의 경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명령, 신명기 15장 말씀, 7년 말에는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명령은 아무나 실천할 수 없다. 먼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크게 성공해야 한다. 돈 많은 사람 많지만, 7억7천만원 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더 부자 되기 위해서 30년 모기기를 버리지 않는다. 부자들이 30년 모기지의 단골손님들이다.

7년 말에 채무를 면제하라는 명령은 미국에서는 파산법에 적용해서 법리화 했다. 그러나 경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용자를 7년 말에는 만일에 값지 못했다면 면제시켜 주는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크리스찬이 나타나야한다. 그러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도 떨어지고, 홈리스도 줄어들게 되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부를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줄어드는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하느님 말씀이 현실화 되면 곧 천국이 된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 손을 넓게 펼쳐서 물질적으로 이자붙이지 않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라면, 하느님을 믿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요구하며, 삶 전체를 투자할 정도로 그 명령이 크고도 위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대한 명령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겨자나무는 될 수 있으나 누룩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예언자아 선지자를 보내주시라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라는 소망과 기도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위대한 명령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지도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혼이 구원 얻는 길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명령을 실행해서
성공해서, 그것도 크게 성공해서, 하느님 말씀이 실행되어
천국으로 바꾸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 살든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 명령을 추진하고
실천해서 천국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느님의 축복이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겨자나 누룩이나 하는 제목은, 겨자도 되었다 누룩도 되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내가 천당을
내 마음에 세우고, 세상에서 겨자나무나 혹은 누룩으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내 손을 너그럽게 펼쳐 보살피야
내가 천국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의 축복과,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